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트럼프는 8월 1일 이후로 관세 논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[미국 경제]

- Reuters: 뉴욕 연준, '미 소비자들 재정과 인플레 안정적'
- Bloomberg: 최근 노동 보고서에서 일자리 둔화 현상 보여

[미국 금융]

- Reuters: BofA, 골드만 삭스, S&P500 지수 상향 조정

[세제 개혁]

- YahooFinance: 트럼프 주 및 지방 정부세 공제 상향으로 뉴욕, 뉴저지주 주택 소유자에 혜택

[무역 전쟁]

- WSJ: 미국의 아시아 무역국들, 트럼프에 마지막 관세 협상 노력
- WSJ: 일본 정부, "미국과 협상 타격 노력 계속한다"
- WSJ: 관세 협상 연장돼도 불확실한 관세가 글로벌 성장 압박
- WSJ: 유럽연합과 미국 관세 합의 가까워...일부 블럭 내 갈등

[자동차]

- WSJ: '트럼프 세제 개혁, 오히려 중국 전기차 제조업에 유리'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아마존, 프라임 데이 기간 늘린다
- Bloomberg: 애플 최고 AI 모델 책임자, 메타로 옮겨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Reuters: US consumers happier about finances, expect stable inflation, New York Fed says
뉴욕 연준 '미 소비자들 재정과 인플레 안정적'

- 뉴욕 연준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미 소비자들의 인플레에 대한 예상과 전월과 별 변동이 없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.
- 이에 따르면 6월 현재 미 소비자들의 내년 금리는 당초 5월 조사의 3.2%에서 3%로 다소 낮아졌다. 그리고 향후 3년과 5년후 인플레 전망은 각각 3%와 2.6%로 나타났다.
-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개인 재정 상태를 평가할 때 작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신용도 더 얻기 쉬운 것으로 평가했다.

Reuters 기사

Bloomberg: Cautionary Signals Emerge in Latest US Jobs Report 최근 노동 보고서에서 일자리 둔화 현상 보여

- 최근 미 일자리 보고서의 특징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약세를 보였으며 특정 분야에서의 집중 고용이 이루어지고, 근로 시간도 줄어 일자리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.
- 새로 증가한 14만 7천 개의 일자리는 주로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교육 분야 일자리 증가로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수치가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.
- 일자리 시장의 증가세도 약했고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자리가 줄었으며 특히 수요 감소로 인해 근로 시간이 줄었다. 총급여 규모는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Reuters: BofA, Goldman Sachs latest on Wall Street to lift S&P500 index's annual target BofA, 골드만삭스, S&P500 지수 상향 조정

- BofA와 골드만삭스는 오늘 화요일 S&P500의 연말 지수를 상향 조정했다. 이유는 정책 불확실성이 줄고 좋은 기업 실적 예상과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.
- BofA는 S&P500 지수 목표를 5600에서 6300으로 상향 조정했다. 골드만삭스는 6100에서 66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수익률을 각각 1%와 6%를 올린 것이다.
- Barclays, Citigroup, Deutsche Bank도 지난달에 S&P500 지수를 상향 조정했다.

Reuters 기사

[세제 개혁]

YahooFinance: Who stands to benefit from the new SALT cap? High-earning homeowners in high-tax states. 트럼프 주 및 지방 정부세 공제 상향으로 뉴욕, 뉴저지주 주택 소유자에 혜택

- 최근 트럼프가 서명한 연방 세제법의 주 및 지방세 공제 상향 조정에 따라 뉴욕, 뉴저지,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주들의 경우 특히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- 이들이 소득세, 재산세 등에 한해 지금까지 1만 불의 소득 공제가 4만 불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. 이들이 받게 되는 연간 소득 혜택은 수천 달러에 달한다는 것.
- 한편 뉴저지 주택 소유자들의 40%는 연간 1만 불 이상 세금을 내며, 뉴욕은 그 중에 26%, 코네티컷과 캘리포니아는 19%의 소유자가 1만불 이상 세금을 내고 있다.

YahooFinance 기사

[무역 전쟁]

WSJ: U.S.'s Biggest Asian Allies Ready Last-Ditch Trade Appeal to Trump 미국의 아시아 무역국들, 트럼프에 마지막 관세 협상 노력

-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로부터 관세 25% 부과 서한을 받은 가운데 트럼프는 미국 동맹국들에 협상 논의 기간 8월 1일까지 새로운 협상 조건을 타결하거나 통고된 관세율을 부과받도록 요구하고 있다.
- 이에 미국에 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-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인 연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미 경제적인 관계가 연결된 아시아 국가들에 이 같은 요구는 도전이 되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Japan Determined to Strike Fair Trade Deal With U.S. 일본 정부, “미국과 협상 타격 노력 계속한다”

- 트럼프로부터 당초 관세 24%에서 25%로 오른 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받은 일본 정부는 연기된 관세 유예 마감일인 8월 1일까지 미국과 계속 협상을 벌여 상호 관세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본 수상 Shigeru Ishiba와 고위 책임자들은 밝혔다.
- 이시바 수상은 “우리는 계속 협상을 벌여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보호해야 하는 바를 지켜나가도록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한편 트럼프는 일본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“25% 관세 부과는 양국의 무역 적자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은 수준”이라면서 “일본과 일본 기업들의 노력에 따라 관세를 낮출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 한편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핵심 산업으로 일본으로서는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25% 관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Tariff Uncertainty Likely to Weigh on Global Growth Even After Extended Talks 관세 협상 연장돼도 불확실한 관세가 글로벌 성장 압박

-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마감 시한은 연장했으나, 결과를 기다리던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.
-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소비와 미국으로의 수출을 약화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, 미국에는 특히 그 여파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.
- 유엔은 관세 인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전 세계 인수합병, 합작 투자 등 일부 해외 투자 지표가 연초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밝혔다.
-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외의 이유로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에 있어, 기업들은 대응책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EU Closes In on U.S. Trade Deal, Testing Bloc's Unity 유럽연합과 미국 관세 합의 가까워...일부 블럭 내 갈등

-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.
- 그런데 유럽연합 내부에서 일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신속한 합의를 원하는 대신에 유럽은 미국의 압력에 양보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- 문제는 미국이 이미 자동차 분야 등에서 관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 산업에 관세 부과를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.

YahooFinance 기사

[자동차]

WSJ: Trump's Megabill Gives Chinese EV Makers a Leg Up, Says Head of Auto Group '트럼프 세제 개혁, 오히려 중국 전기차 제조업에 유리'

- 트럼프 행정부가 9월 이후 구매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종료시키면서, 이에 관해 중국 자동차 산업 그룹인 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의 Cui Dongshu 사무총장은 “이 개혁안은 중국 국내 브랜드의 수출에 성장을 가져다 줄 것”이라 말했다. 세제 개혁안에는 미국 기업들의 전기차에 세제 공제를 올해 말로 줄이기로 했다.
- 실제로 BYD 등 중국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중국산 신에너지차 수출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48% 증가해 100만 대에 근접했다.
- 또한, 중국 내 국내 브랜드가 상반기에 시장 점유율 64%를 차지했는데, 전년 동기 대비 7.5% 증가한 수치이다.
- 한편, 중국은 현재 중고차 매입 장려 정책을 펼치며 국내 브랜드 차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고 한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Amazon Turns Prime Day Into Prime Week 아마존, 프라임 데이 기간 늘린다

- 아마존이 올해는 프라임 데이를 이틀에서 4일로 늘려 프라임 위크로 운영하면서, 미국에서 작년 대비 64% 증가한 129억 달러의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.
- 소비자들은 이번 기간 동안 대폭 할인된 상품과, 연말에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 제품 구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.
- 행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판매자들의 광고 기회도 늘어나 아마존의 광고 매출 확대가 예상되며, 현재 연간 500억 달러를 돌파한 아마존의 광고 매출이 더욱 성

-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또한, 아마존은 이 기간에 연간 139달러의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에 신규 가입자 유치도 시작할 예정인데, 초고속 배송, TV 스트리밍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.

WSJ 기사

Bloomberg: Apple Loses Top AI Models Executive to Meta's Hiring Spree 애플 최고 AI 모델 책임자, 메타로 옮겨

- 애플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담당하던 저명한 엔지니어 겸 매니저 Ruoming Pang이 메타로 이직한다. 그는 애플 내 약 100명 규모의 AI 모델 팀을 총괄해왔다.
- 메타는 Pang을 영입하기 위해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보상 및 혜택 패키지를 제안해 왔고, 월요일 늦게 그의 채용을 확정했다.
- 그의 사임은 추가 이탈 사례의 시작일 수 있으며, 애플의 일부 엔지니어가 메타로의 이직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뉴욕증시, 트럼프 무역서한 발송·관세압박에 하락...다우 0.9%↓ 韓투자 ETF·日도요타 등 급락...테슬라는 머스크 신당 창당에 7% 급락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여파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 7일(현지시간) 뉴욕증시가 하락했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2.17포인트 (-0.94%) 내린 44,406.36에 거래를 마쳤다.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.37포인트(-0.79%) 내린 6,229.98에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8.59포인트 (-0.92%) 내린 20,412.52에 각각 마감했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